

CBS가 만든  성경 채널
알림바이블 대본집

Ep.023

만나와 물

(출애굽기 15:22~17:7)



이집트 군대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해 이동했어요.
하지만 여정의 대부분은 쉽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걸은 길은
사막이나 황무지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느덧 물을 못 마신 지 3일째.

목마름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렇게도 기다리던 샘물이 보였어요!

“살았다 살았어! 드디어 물이 나타났다!
이야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샘물로 달려갔고
가축들도 물을 보고 좋아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이 한 가지 있었어요!
‘마라’라는 지명의 뜻은 ‘쓰다’는 뜻이었던거죠.
왜냐구요?


바로 그 지역의 물맛이
약처럼 쓰디떴기 때문이죠!

“우웁! 튼! 튼! 무슨 물맛이 이래?
이렇게 쓴 물은, 소나 양한테 줘도
안 먹을 거라구!”

순식간에 실망한 백성들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불만을 쏟아냈어요.

“우린 대체 뭘 마시란 말이요?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왔으면 마실 물 정도는
해결해 줘야 할 거 아니요?”

속이 상한 모세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
모세에게 큰 능력을 주셨죠.

An illustration of two men, Moses and Aaron, sitting on the ground and cooking. They are both wearing traditional Jewish head coverings and robes. Moses is on the left, wearing a purple robe, and Aaron is on the right, wearing a green robe. They are both holding long wooden sticks. In front of them is a large fire burning in a pit. There are three bowls of food in front of them: one on the left with brown food, one in the middle with blue food, and one on the right with brown food. The background is a light blue sky with several birds flying and some stars.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샘물가 옆에 있던
나무 한 그루를 샘물에 바싹뜨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샘물의 물이 달콤해졌죠.

사람들은 허겁지겁 갈증을 달랬고
그제야 그들의 불만도 가라앉았어요.

시간이 흘러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에서
또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배가 고팠던 거죠.

**“아이고. 이게 웬 고생이야.
발에 물집 잡힌 것 좀 보라구 맨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 끝없는 벌판을 언제까지 걸어야 되는거지?”**

**“이봐요 모세!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릴 이집트에서 죽게 만드시는 게 나을 뻔했소.
이집트에서는 집에 가면 밥 지을 숯이라도 있고.
빵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당신이 우릴
여기까지 끌고 와서 굶기고 있지 않소?
어떻게 책임질 거요?”**

**모세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백성들...
답답하기 짝이 없었죠.**

**“이보시오! 그만 좀 불평하시오!
겉으로는 나를 원망하지만, 사실 당신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흠흠.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또 한 번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좀 우릴 구출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보란 말입니다!”**

**그날 저녁, 모세가 말한 대로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났어요.
별안간 사방에서 메추라기들이 날아온 거죠!**

끓주려있던 사람들은 부랴부랴 메추라기를
잡아서 와구와구 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하암~ 잘 잤다. 어? 이게 뭐야!
간밤에 눈이 온 건가? 이 더운 지역에?”

온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있었어요.
하늘에서 하얀 서리 같은 것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라는 음식이었어요.
얇은 조각이었지만 이걸 모아서 한 움큼 먹으면
꿀처럼 달콤했죠.

모세가 말했어요.

**“자,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기도 풍족히 주시고 이 같은 만나를
이제 아침마다 내려주실 겁니다.
이 만나를 오래 저장해두면 곧바로 썩어버리니
욕심내지 말고 각자 먹을 만큼만 가져가십시오.”**

입이 잔뜩 나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제야 불만을 거두고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얼마 후, 우리가 ‘르비딴’이란 곳을 지났을 때
다시 한번 백성들은 불만을 쏟아냈죠.

**“물을 달라! 우리에게 마실 물을 달라!
우릴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모세는 책임지고 물을 달라!”**

백성들은 목이 마른 나머지 당장 모세에게
돌이라도 던질 기세였어요.

모세는 답답함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을 대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목마르다 해서 물을 주면 배고프다 하고
배고프다 해서 양식을 주면 또 목마르다 하고
이젠 저들이 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야. 사람들을 ‘ 시내 산 ’으로 데려 가거라.
거기에 있는 바위를 지팡이로 내려치면
거기서 마실 물이 나올 것이다.”**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바위를
지팡이로 쳤더니 메마른 땅에서
개끗한 시냇물이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은 언제 화내고 불평했냐는 듯 정신없이
물을 마시기 바빴죠.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께서 매번 이렇게 백성들을 도와주시면
또 다시 불평할 텐데 앞날이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이번엔 직접 그분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실 생각이었죠.